No. 24 경제 전망·정책 읽는 시간 15분

연준 금융안정보고서, AI 빚 6,800억 달러와 장부 밖 3조 달러는 무엇일까?

미국 연준이 11월 13일 낸 금융안정보고서는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쓰인 빚을 따로 다뤘습니다. 발행액 6,800억 달러, 장부 밖 약정 3조 달러, 설문 응답 87%라는 숫자를 69쪽 원문으로 확인하고, 연준이 쓴 말과 쓰지 않은 말을 나눠 정리합니다.

한 줄 결론

연준은 네 가지 취약성 평가를 5월과 같게 두면서 데이터센터 빚과 장부 밖 약정을 따로 짚었음. 3조 달러는 할인 전 약정의 합이고, 87%는 시장 관계자 23명 중 20명의 답임

확인할 숫자

AI 인프라용 빚 발행액, 투자등급 회사채 중 비중, 미개시 임대와 약정, 회사채 스프레드, 헤지펀드 레버리지



사진: 미국 워싱턴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본관, Federal Reserve, Wikimedia Commons.

목차

1. 금융안정보고서는 무엇을 재는 보고서일까?
2. AI 데이터센터에 쓰인 빚은 얼마나 빨리 늘었을까?
3. 닷컴 시절 통신망 투자와 견주면 어디쯤일까?
4. 장부에 잡히지 않는 약정 3조 달러는 무엇일까?
5. 「순환 금융」은 어떻게 돌아갈까?
6. 그 빚과 약정은 누가 들고 있을까?
7. 주가와 헤지펀드 레버리지는 왜 함께 봐야 할까?
8. 「응답자 87%」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9. 연준이 그린 나쁜 길은 어떤 순서일까?
10. 연준 보고서 뉴스를 볼 때 던질 여섯 가지 질문

> 이 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2026년 11월)를 읽고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특정 종목이나 채권의 매수·매도 권유, 주가나 위기에 대한 예측이 아닙니다. 임대 약정의 현재 가치 계산은 설명용 가상 예시입니다.

11월 1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융안정보고서를 냈습니다. 뒤따른 기사 제목은 서로 비슷했습니다. 「AI가 금융 안정의 최대 위험」, 「응답자 87%가 지목」, 「숨은 부채 3조 달러」 같은 말이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실제로 무엇을 썼을까요? 69쪽짜리 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숫자가 나온 자리와 그 숫자에 붙은 단서를 차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목보다 차분한 대목도 있었고, 제목보다 무거운 대목도 있었습니다.

01

금융안정보고서는 무엇을 재는 보고서일까?

금융안정보고서는 연준이 1년에 두 번, 봄과 가을에 내는 점검표입니다. 경기를 전망하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을 키울 약한 곳이 금융 시스템 어디에 있는지를 봅니다. 이번 보고서는 10월 28일까지의 자료를 담았습니다.

연준은 약한 곳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자산 가격, 기업과 가계의 빚, 금융회사의 레버리지(빌린 돈으로 투자 규모를 키우는 것), 자금 조달 위험입니다. 이번 평가는 차례로 「높음」, 「보통」, 「눈에 띄는 수준」, 「보통」이었습니다. 네 항목 모두 「계속」 또는 「여전히」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5월 보고서와 같은 평가라는 뜻입니다.



그림 1. 연준이 나눈 네 가지 취약성과 2026년 11월 보고서의 평가. 출처는 연준 금융안정보고서 개요.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기업·가계의 빚 항목은 「보통」입니다.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기업 부채는 완만히 줄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 비율은 1990년대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은행의 자본 비율도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같은 항목 안에 상자 글 하나를 따로 넣었습니다. 제목은 「데이터센터 건설의 레버리지」입니다. 전체 평가는 그대로 두고, 한 곳만 확대해서 들여다본 셈입니다.

02

AI 데이터센터에 쓰인 빚은 얼마나 빨리 늘었을까?

상자 글의 첫 숫자는 발행액입니다. 첨단 컴퓨팅 인프라, 곧 AI 데이터센터와 그 장비를 마련하려고 발행된 빚은 2023년 한 해 1,300억 달러였습니다. 2026년에는 10월까지 6,8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5.2배입니다(직접 계산). 대부분은 투자등급 기술 기업이 발행했습니다.

회사채 시장에서 차지하는 자리도 커졌습니다. 투자등급은 신용평가사가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본 등급입니다. 금융회사를 뺀 투자등급 기업의 채권 발행액 가운데 이 분야의 비중은 2023년 6% 미만에서 2026년 약 31%가 됐습니다. 올해 새로 나온 우량 회사채 3달러 중 1달러 가까이가 AI 인프라용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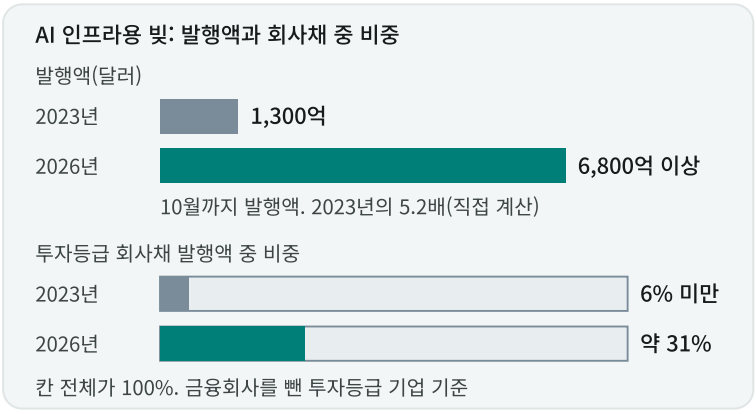


그림 2. 발행액 막대와 비중 막대는 각각 값에 비례함. 출처는 연준 금융안정보고서 상자 글 2.2.

지금까지 쌓인 잔액은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1조 1,00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10월 기준). 연준은 여기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집계에는 일부 사모 거래가 빠져 있습니다. 사모 신용 시장에서도 큰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서 전체 규모는 정확히 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모 신용은 은행이 아닌 펀드가 기업에 직접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빚의 모양도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회사채였습니다. 지금은 공모와 사모 채권, 구조화 증권,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섞여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회사 전체가 아니라 그 사업에서 나올 돈만으로 갚는 대출입니다.



사진: 하늘에서 본 미국 버지니아주 애슈번의 데이터센터 단지, Theodore Christopher, Wikimedia Commons.

03

닷컴 시절 통신망 투자와 견주면 어디쯤일까?

지금의 데이터센터 투자는 1990년대 말 통신망 투자 붐과 자주 비교됩니다. 그때 통신사들은 인터넷 수요를 믿고 빚을 내어 망을 깔았습니다. 연준은 두 시기를 한 그림에 겹쳐 놓았습니다.

비교 대상은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클라우드 회사) 5곳과 당시 통신 업종 전체입니다. 5곳은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입니다. 2020년부터 쌓인 설비투자를 GDP에 견줘 보면 1995년에 시작한 통신 붐과 비슷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빨라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번 투자 속도가 「비교적 곧」 통신 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썼습니다.



그림 3. 연준이 상자 글의 그림 B와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함. 출처는 연준 금융안정보고서 상자 글 2.2.

다른 점도 적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는 벌어들이는 현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규모를 투자하면서도 통신사만큼 빚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연준은 여기에 「적어도 올해 전까지는」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 단서는 회사 실적에서도 확인됩니다.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네 회사가 3분기에 쓴 설비투자는 영업으로 번 현금의 115.1%였습니다. 번 돈보다 더 쓴 분기였습니다. 계산은 빅테크 AI 설비투자 2,019억 달러, 번 현금보다 더 쓴 3분기는 무엇을 뜻할까?에서 다뤘습니다.

04

장부에 잡히지 않는 약정 3조 달러는 무엇일까?

상자 글에서 가장 무거운 문장은 따로 있습니다. 빚도 늘었지만 다른 의무는 그보다 더 빠르게 늘었다는 문장입니다. 다른 의무란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잡히지 않는 약속을 말합니다.

연준은 이를 둘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임대 계약으로, 1조 달러를 넘습니다. 둘째는 그 밖의 약정으로, 2조 달러를 넘습니다. 둘을 더하면 3조 달러 이상입니다(직접 합산). 보고서는 합계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대상은 아마존, 알파벳, 브로드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라클 일곱 회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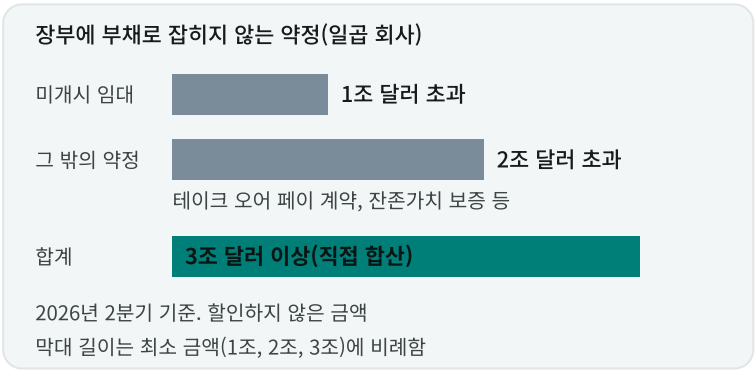


그림 4. 장부상 부채와 바로 비교할 수 없는 금액임. 출처는 연준 금융안정보고서 상자 글 2.2.

낯선 용어를 풀어 보겠습니다.

- **미개시 임대.** 데이터센터가 다 지어지면 여러 해 동안 빌려 쓰겠다고 미리 맺은 계약입니다. 건물을 넘겨받기 전이라 아직 부채로 적지 않습니다.
- **테이크 오어 페이(take-or-pay) 계약.** 쓰든 안 쓰든 정해진 돈을 내기로 한 계약입니다.
- **잔존가치 보증.** 몇 해 뒤 장비 값이 약속한 금액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메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단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 금액은 할인하지 않은 값입니다. 앞으로 여러 해에 걸쳐 낼 돈을 그대로 더했다는 뜻입니다. 연준도 장부상 부채와 바로 비교할 수 없다고 각주에 적었습니다.

가상의 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15년 동안 임대료를 내기로 했다면 낼 돈의 합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를 연 5%로 할인해 지금 가치로 바꾸면 약 1억 2,646만 원입니다(직접 계산). 30% 쯤 작아집니다. 약정 3조 달러를 빚 3조 달러와 같은 무게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둘째, 약정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보증은 일이 잘못됐을 때만 돈이 나갑니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연준의 그림에서 2020년에는 장부상 부채가 다른 의무보다 훨씬 컸습니다. 2026년 2분기에는 순서가 뒤집혔습니다.

05

「순환 금융」은 어떻게 돌아갈까?

이런 약정은 왜 늘어날까요? 신용이 좋은 큰 회사가 신용이 약한 작은 회사의 자금 조달을 돕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큰 회사의 장부에는 당장 표가 나지 않습니다.

연준이 든 예는 두 가지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가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장기 임대 계약을 맺습니다. 개발사는 이 계약을 근거로 건설 자금을 빌립니다. 또 그래픽처리장치(GPU) 회사는 GPU의 잔존가치를 보증해 줍니다. AI 모델 회사는 그 보증에 힘입어 GPU를 담보로 돈을 빌려 GPU를 삽니다.

여기에 지분 투자가 더해집니다. 하이퍼스케일러와 GPU 설계 회사가 이 작은 회사들의 주식도 삽니다. 돈을 대 준 회사가 자기 제품을 사 줄 고객을 함께 키우는 셈입니다. 연준은 이를 「순환 금융」이라고 불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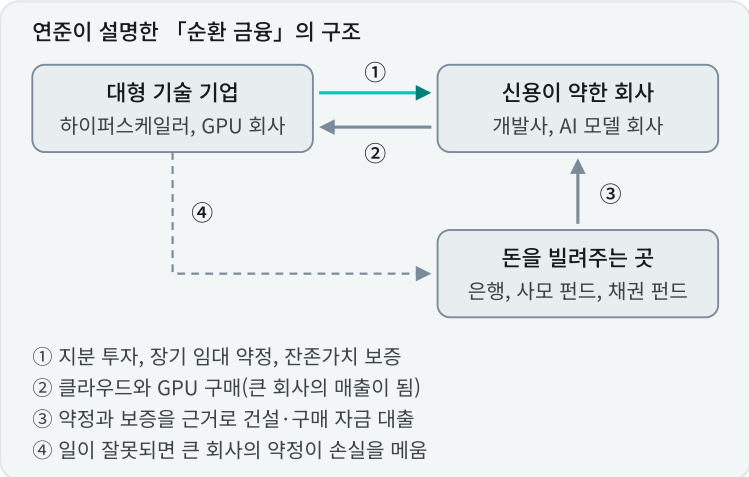


그림 5. 보고서의 설명을 그림으로 옮긴 것이며 특정 회사의 거래를 나타내지 않음.
출처는 연준 금융안정보고서 상자 글 2.2.

연준의 평가는 양쪽을 다 봅니다. 좋은 쪽을 먼저 적었습니다. 경기가 꺾이면 가장 큰 기술 기업들이 손실을 흡수해, 금융 시스템의 나머지로 번지는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쁜 쪽은 그 뒤에 나옵니다. 이 회사들이 실제로 지는 위험이 장부상 부채가 보여 주는 것보다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본문에서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데이터센터 건설에 참여한 회사, 공모 채권 시장, 사모 대출자, 특수목적회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취약성」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거품」이라는 낱말은 보고서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06

그 빚과 약정은 누가 들고 있을까?

위험이 어디로 번질지는 누가 들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준은 세 층으로 적었습니다.

첫째는 하이퍼스케일러와 GPU 회사가 직접 발행한 채권입니다. 주로 뮤추얼펀드, 연기금, 보험사가 갖고 있습니다. 둘째는 약정과 연결된 특수목적회사(SPE)의 빚입니다. SPE는 특정 사업만을 위해 세운 서류상 회사입니다. 여기서 나온 후순위 채권과 지분은 하이일드 채권 펀드, 생명보험사, 사모 대출 펀드가 갖고 있습니다. 후순위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돌려받는 자리여서 위험이 더 큽니다.

셋째는 은행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은행지주회사들은 대형 기술 기업, 데이터센터 개발사, 관련 SPE와 사모 신용 펀드, 전력 회사에 1조 달러 가까운 익스포저(위험에 노출된 금액)를 갖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 금액을 해마다 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점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림 6. 보유자를 세 층으로 정리함. 출처는 연준 금융안정보고서 상자 글 2.2.

사모 신용이 여러 번 등장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준은 올해 9월부터 사모 신용을 공식 자금순환 통계에 넣었고, 이번 보고서에 처음 반영했습니다. 사모 신용 펀드의 금융자산은 2012년 약 3,500억 달러에서 2025년 2조 6,000억 달러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그중 미국 기업에 빌려준 돈이 약 1조 5,000억 달러입니다. 사모 대출 펀드에 돈을 맡긴 곳은 연기금(42%), 가계와 비영리단체(23%), 생명보험사(14%) 순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 인프라의 빚은 은행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채권 펀드, 연금, 보험, 사모 펀드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넓게 퍼지면 한 곳이 무너질 위험은 줄어듭니다. 대신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보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사진: 해 질 녘 뉴욕 로어 맨해튼의 금융가, Phil Dolby, Wikimedia Commons.

07

주가와 헤지펀드 레버리지는 왜 함께 봐야 할까?

빛 이야기 옆에는 가격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준은 주식의 가치 평가가 여전히 높고, 그 일부는 「초지능(SI)에 대한 시장의 열광」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중앙은행 보고서에 이 낱말이 들어간 것부터 눈에 띕니다.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S&P500의 12개월 예상 PER(주가를 예상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이 1990년 이후 중간값인 15.96배를 크게 웃돕니다. FactSet 집계로는 11월 12일 18.3배입니다. 또 주식 위험 프리미엄 추정치는 과거 분포의 아래쪽 끝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식 위험 프리미엄은 국채 대신 주식을 들 때 더 받는 보상입니다. 그 보상이 얇다는 뜻입니다.

다만 연준은 PER이 지난 1년 동안 내려왔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이익 전망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은 국채 금리 5% 시대, 미국·일본·한국 금리는 왜 함께 올랐고 무엇을 바꿀까?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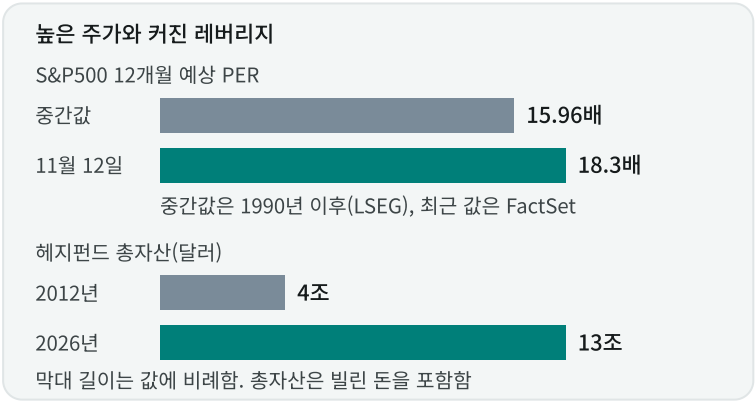


그림 7. PER의 두 값은 집계 기관이 달라 정확히 같은 기준은 아님. 출처는 연준 금융안정보고서, FactSet.

여기에 레버리지가 겹칩니다. 헤지펀드의 레버리지는 자료를 모으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2026년 1분기 기준). 주식, 상대가치, 매크로 전략에서 사상 최고이거나 그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헤지펀드의 총자산은 2012년 4조 달러에서 2026년 13조 달러로 3.25배가 됐습니다(직접 계산). 개인이 주로 쓰는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상품 가운데 주식형의 순자산도 1,7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둘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는 속도입니다. 빌린 돈으로 산 자산은 값이 내리면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 매도가 값을 더 내립니다. 연준은 자산 가격 하락이 레버리지 투자자의 매도로 증폭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레버리지가 손실을 키우는 원리는 신용융자(빚투)는 수익을 두 배로 키워 줄까?에서 계산해 봤습니다.

08

「응답자 87%」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가장 많이 인용된 숫자는 87%입니다. 금융 안정을 위협할 위험을 묻는 설문에서 AI를 꼽은 비율입니다. 이 숫자에는 단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응답자는 23명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직원이 9월과 10월에 증권사, 은행, 투자 펀드, 자문사의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87%는 23명 중 20명입니다(직접 계산). 둘째, 연준의 견해가 아닙니다. 보고서는 이 설문을 연준 이사회나 뉴욕 연은의 견해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AI」라는 답 안에는 서로 다른 걱정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높은 주가, AI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 복잡한 AI 관련 자금 조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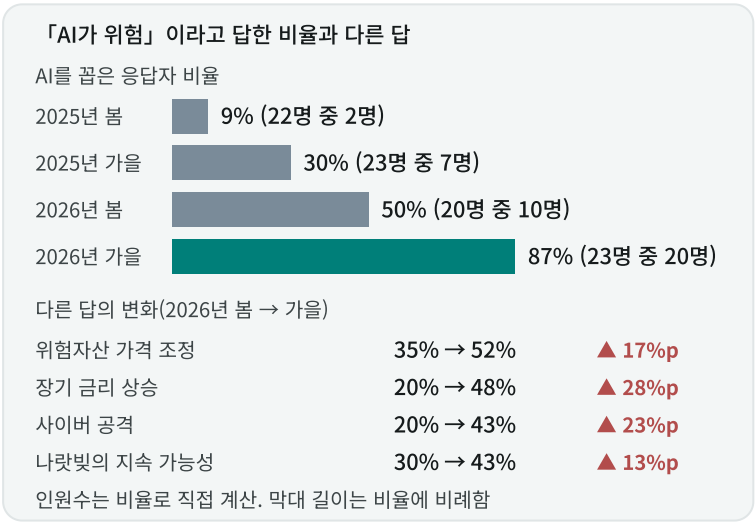


그림 8. 여러 개를 고를 수 있는 설문이어서 비율의 합은 100%를 넘음. 출처는 연준 금융안정보고서(2025년 11월, 2026년 11월)의 뉴욕 연은 설문.

그래도 방향은 뚜렷합니다. AI를 꼽은 비율은 2025년 봄 9%, 2025년 가을 30%, 2026년 봄 50%, 이번 가을 87%입니다. 1년 반 만에 한 자릿수에서 거의 전부가 됐습니다.

다른 답도 볼 만합니다. 위험자산 가격 조정은 35%에서 52%로, 장기 금리 상승은 20%에서 48%로, 사이버 공격은 20%에서 43%로, 나랏빚의 지속 가능성은 30%에서 43%로 늘었습니다. 반대로 사모신용을 꼽은 사람은 줄었습니다. 봄 조사에서 가장 많이 꼽힌 지정학 위험과 유가 충격은 이번에는 뒤로 밀렸습니다.

설문은 온도계입니다. 시장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가장 많이 걱정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을 재는 도구는 아닙니다.

09

연준이 그린 나쁜 길은 어떤 순서일까?

보고서의 마지막 장은 가까운 시기의 위험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기업 투자의 실망스러운 수익, 사이버 사고, 지정학 갈등입니다. 첫째가 이 글의 주제와 닿아 있습니다.

연준은 올해 미국의 성장을 이끈 큰 힘이 민간 설비투자였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기업 이익이 예상보다 나빠집니다. 기업 자산의 값이 내리고 돈 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기업이 설비투자를 줄입니다. 경제 전체의 수요가 줄어듭니다. 약해진 경기는 빚이 많은 기업과 취약한 가계를 압박하고, 은행과 대출자의 손실로 돌아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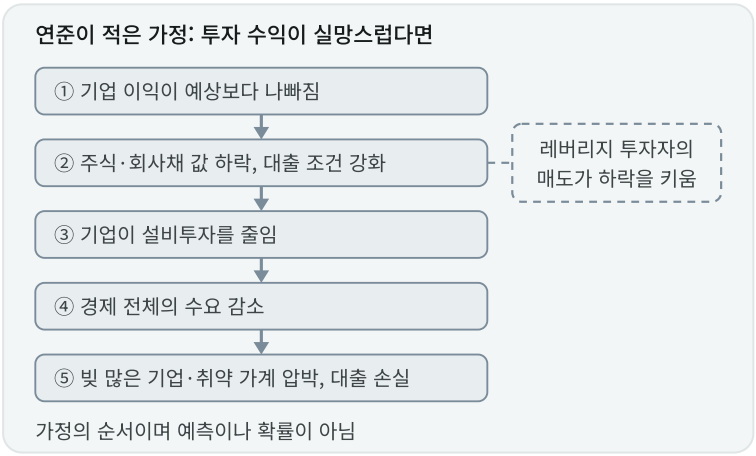


그림 9. 보고서 5장 「단기 위험」의 서술을 순서대로 옮김. 출처는 연준 금융안정보고서.

이것은 예측이 아닙니다. 「만약 이익이 실망스럽다면」으로 시작하는 가정입니다. 연준은 확률을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숫자도 한쪽만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회사채 스프레드(국채보다 더 얹어 주는 금리)는 과거 범위의 아래쪽 끝에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아직 위험을 낮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등급 기업의 이자 갚을 능력도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볼 것은 방아쇠가 아니라 계기판입니다.

- **분기 실적의 주석.** 빅테크 실적에서 설비투자와 영업현금흐름, 그리고 아직 시작되지 않은 임대와 구매 약정 금액이 얼마나 늘었는지 봅니다.
- **회사채 스프레드.** 이번 보고서에서 투자등급은 거의 그대로였고 하이일드(투자등급 아래)는 조금 벌어졌습니다. 이 간격이 더 벌어지는지 봅니다.
- **클라우드 매출 증가율.** 투자가 매출로 돌아오는 속도입니다.
- **다음 점검.** 연준의 다음 금융안정보고서는 2027년 봄에 나옵니다. 대형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해마다 발표됩니다.

10

연준 보고서 뉴스를 볼 때 던질 여섯 가지 질문

지금까지의 내용을 여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연준이 경고했다」는 제목을 볼 때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연준의 전체 평가가 바뀌었나?"**
   →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항목의 평가는 5월과 같습니다. 대신 데이터센터 빚을 상자 글로 따로 다뤘습니다.

2. **"6,800억 달러는 무엇을 센 숫자인가?"**
   → 2026년 10월까지 발행된 AI 인프라용 빚입니다. 2023년 1,300억 달러의 5.2배이고, 일부 사모 거래는 빠져 있습니다.

3. **"3조 달러는 빚인가?"**
   → 빚이 아닙니다. 일곱 회사의 미개시 임대(1조 달러 초과)와 그 밖의 약정(2조 달러 초과)을 더한 값이고, 할인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4. **"87%는 누구의 답인가?"**
   → 시장 관계자 23명 중 20명의 답입니다. 연준의 견해가 아닙니다. 다만 1년 반 전에는 9%였습니다.

5. **"그 빚은 누가 들고 있나?"**
   → 채권 펀드, 연기금, 보험사, 사모 대출 펀드에 퍼져 있습니다. 대형 은행의 관련 익스포저는 1조 달러에 가깝습니다.

6. **"연준은 무엇을 하겠다고 했나?"**
   →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은행의 익스포저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점검합니다. 보고서에 새 규제는 없습니다.

이처럼 연준 금융안정보고서가 말한 것은 「AI가 위기를 부른다」가 아니었습니다. 빚 6,800억 달러보다 장부 밖 약정 3조 달러가 더 빨리 늘고 있고, 그 연결이 복잡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숫자는 제목보다 단서에서 더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다음에 「숨은 부채 몇 조」라는 제목을 보면 누구의 숫자인지, 무엇을 센 것인지, 할인하기 전인지 뒤인지부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담당자 검토]

참고 자료

-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inancial Stability Report, November 2026(2026.11.13 공개, 2026.10.28까지의 자료): 개요, 1~5장, 상자 글 2.1 「Z.1 Data Enhancements」, 상자 글 2.2 「Leverage in the Data Center Buildout」(23~25쪽), 상자 글 5.1 「Survey of Salient Risks to Financial Stability」(49~50쪽)
-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inancial Stability Report, November 2025: 설문 표(AI를 꼽은 비율 2025년 봄 9%, 가을 30%, 응답자 22명과 23명). 제퍼슨 부의장 연설 「AI, the Economy, and Financial Stability」(2025.11.21)
- FactSet, Earnings Insight(2026.11.13): S&P500 12개월 예상 PER
- 아마존·알파벳·마이크로소프트·메타의 2026년 3분기 실적 발표 자료: 설비투자와 영업현금흐름(이 블로그의 앞선 글에서 계산)
- 발행액 배수(5.2배), 약정 합계(3조 달러 이상), 설문 응답 인원수, 헤지펀드 총자산 배수(3.25배)는 위 자료로 직접 계산한 값. 그림 3·5·6·9는 보고서의 서술을 정리한 그림. 임대 약정의 현재 가치(월 100만 원, 15년, 연 5%)는 설명용 가상 예시
- 통신사들이 빚을 내어 망을 깔았다는 한 줄 배경은 일반적인 역사 설명이며 보고서의 문장이 아님

분류·태그 경제 전망·정책 #AI #데이터센터 #레버리지 #밸류에이션 #빅테크 #연준 #위험관리 #클라우드

온라인 원문: https://www.stock-diary.kr/p/2026-11-16-fed-fsr-ai-debt.html

AI 활용 안내 이 리포트는 AI(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작성자가 검토했습니다. AI가 만든 문장과 숫자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숫자는 「참고 자료」의 원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작권 안내 이 문서의 글과 그림은 블로그 운영자가 만든 것으로, 허락 없이 복제·배포·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용한 외부 자료와 사진의 저작권은 각 출처에 있으며, 출처는 본문 캡션과 「참고 자료」에 밝혔습니다. [담당자 검토]